

필요광장

devilangel1004@gmail.com



김 하 립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국정원의 해킹 의혹 사건은 핵심 담당자의 자살로 인해 미궁으로 점차 빠져드는 듯하다. 여야의 정과 방패의 논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실제적 사실과 진실은 오리무중이다. 시간이 흐르면 잊힐지, 사실이 드러날지 알 수 없는 일이나, 이 사건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많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것은 유출된 이메일에서 해킹 팀과 업무 연락을 담당한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아이디가 '데블 에인젤'(devilangel1004@gmail.com)이라는 점이다. 'gmail'은 구글이 제공하는 무료 전자메일로 보안성이 강하고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

용되고 있다. 이 점은 메일 계정을 개설할 때부터 조심했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이 정도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는 없다.

그러나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악마 천사 천사'인 'devilangel1004'라는 아이디는 특이한 작명이다. 요즘은 이메일을 널리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디에 자신의 특징을 드러내고 기억에 도움이 되도록 작명하는 추세이다. 일반인들이 전자메일을 개설할 경우 기본적 방식은 자기 성명의 영문자 이니셜과 생년월일을 숫자화하여 만들거나 핸드폰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자신의 한글 이름을 영문 자판으로 입력하고 숫자를 덧붙이기도 한다. '김'은 'rla'가 되는 식이다.

아니면 좋아하는 영어 단어와 숫자를 결합하는 방식도 많다. 'devilangel1004'도 영어 단어와 숫자를 결합한 방식이며, '1004'는 '천사'로 읽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숫자이기도 하다. 일부 언론에서 이 아이디는 개인 계정이나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어찌 되었든, 이 아이디를 만든 개인이나 집단이 '악마와 천사'라는 극히 대립적인 단어를 사용한 점은, '말은 그 내면의 사고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는 고전적인 '언어-사유' 이론에 비추어 본다면, 아이디 작명 당시 자신들의 일이 지닌 양면성을 인식했거나 고민했다고 볼 수 있겠다. 사실 'devil-angel'은 우리의 전통적 사유 체계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기독교적 사유 체계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인류를 유혹해서 타락에 빠지게 하는 나쁜 영혼의 최고 존재인 악마(demon, devil, satan)와 한 쌍의 날개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천사의 대립은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자주 나타나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존재하지가 어렵다.

그런데 왜 '악마'를 먼저 내세웠을까? 해킹은 '악마'적 행위라고 인식했던 것일까? 왜 '악마-천사-천사'로 했을까? 악마적 행위를 천사가 결국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정보사회의 강점은 수수에 독점되었던 정보를 다수가 공유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정보는 단순히 정보로 끝나지 않고 자본·권력·권위·지식으로 전화하기 때문이다.

날씨 정보 제공이 커다란 사업으로 변모한 것이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정보사회가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개인의 정보를 빼내 가려는 일들이 횡행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한 해킹도 있지만, 대부분은 타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국가와 국방의 비밀, 정치지도자의 생각과 행위, 상대 기업의 장점 등을 사전에 알게 되면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이익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해킹과 해킹에 대한 방어시스템의 구축이 중대한 문제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이탈리아 회사가 개발한 해킹 프로그램은 이 수준을 넘어섰다고 한다. 정보를 빼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시킬 수도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내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내가 만든 내용을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무서운 기술력이다. '악마'가 갈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천사'도 최소 둘이 필요하다는 무의식이 아이디 작명 당시에 작동했던 것은 아닐까?

법조칼럼

안전사고 전담검사로서의 소회



김 희 주
광주지검 검사

유명세를 타 운명이었다지만, 막상 공직생활에 첫발을 들여놓을 당시에는 수면시각 단 단속이 최대 관심사였던 모양이다. 공직에 나아가면서 일부 포기해야 하는 생활들을 애둘러 표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공무원은 봉사와 자기희생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당연한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최근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관내 지자체 일선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민간전문가로 교수님도 모셨다. 간담회의 취지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자는 것인데, 회의내용은 자연스럽게 공무원의 형사책임 문제로 나아갔다.

비싼 업무 중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지루해 했지만 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 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내용인 즉은 '여건이 어렵다. 직접 현장에 나가 건물 1채를 확인하는 것도 하루 종일 걸리는데, 관내 모든 시설물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듣고 보니 일부는 수긍이 되었다. 간담회 주최자인 나와 민간전문가로 참여한 교수님도 이런 이야기에 일정 부분은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작년 한해만도 세월호 침몰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광산구 헬기추락사고 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는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최악의 비극으로, 국민 모두가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느꼈다. 사고 후 각종 언론매체와 주요 기관들은 하나같이 사고원인으로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였다. 민·관 구분할 것 없이 "실마 사고가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기본적인 절차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사회의 근본적 병폐로 지적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돌이켜보면 나 역시도 일상생활에서 안전의식이 미약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안전불감증'이라는 사회적 병폐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재난방지책을 강구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의 증가 원인으로 '생명경시풍조'가 거론되지만, 정작 이런 현상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강력범죄를 감소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대형사고가 터졌음에도 단지 '안전불감증 때문이지'라고 치부한 채 실질적 대비 없이 만연히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불감'

증'의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

간담회 중 느낀 점은 공무원들도 사전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한두 명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천성이 게으르거나 국민들보다 책임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오늘도 '봉사와 자기희생정신'으로 열심히 일할 것이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참석자들에게 '600개의 건물을 아예 점검하지 않은 경우와 절반만 점검한 경우, 599개를 점검하였지만 점검하지 못한 1개 건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나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알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런 분위기에 전담검사인 나 자신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어쩌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회피하거나 '안전불감증'에 걸렸다고 서로를 탓할 것이 아니라 '안전불감증'을 탈피하도록 서로를 자극하고 협조할 때인 것 같다.

기 고

남광주 야시장에선 '추억'을 팝니다



노 희 용
광주시 동구청장

겨져 광주사람들의 식탁을 푸짐하게 했다.

남광주시장은 시장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들다. 호남 아랫녘을 느끼게 휩쓸고 온 경전선 기차는 새벽마다 싱싱한 먹거리를 토해냈다. 경전선 기차가 멈춰서던 남광주역은 시민 객재구의 '사평역에서의 소재'가 된 역이기도 하다.

호남인들의 굴곡 많은 사연을 품어 안은 남광주역은 남광주시장과 단짝이었다. 남광주역이 있었기에 남광주시장은 호남의 특산물로 풍성할 수 있었다. 남광주 시장의 새벽시장은 정말 진풍경이었다. 특히 해산물은 아직도 그 명성을 잃지 않고 있다. 70·80년대 남광주시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활기찼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 상승곡선이 꺾이더니 2000년엔 급기야 철도까지 이설되는 바람에 남광주역사가 폐지되기에 이른다. 설상가상으로 도심 공동화도 병행됐다. 홀로 남은 남광주시장은 버릴 재간이 없어 쇠퇴의 길로 치달았다.

그렇게 한없이 잠잠해 갈 것만 같던 남광주시장에 2015년, 새바람이 불었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2015년 전통시장 야시장 공모사업에 남광주시장과 울산 중앙시장 두 군데가 선정된 것이다. 동구가 전국 20개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얻은 발군의 성과다. 물론 광주시의 큰 도움과 지역 국회의원, 상인들의 적극적 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로써 동구는 국비 5억, 시비 5억 등 총 1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됐고 내년 2월이면 남광주 야시장이 개장을 하게 된다. 역사의 뒤안길로 스러져 가던 남광주시장이 새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오는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코앞에 다가왔다. 거기다 무등산 국립공원 이 가까이 있어 으며 광주의 허파인 푸른길은 아예 남광주시장과 연결돼 있다. 우리 동구가 그 점을 놓칠 리 없다. 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 푸른길 등은 야시장 운영에 최적의 입지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남광주야시장에 직간접적으로 끌어

들일 심산이다. 남광주시장을 차별화된 전통야시장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번 야시장 선정은 40대 이상에게 아련한 추억이 된 남광주시장이 다시 우리 품으로 다가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민에게 추억을 되돌려줄 것이며 외지인과 외국인들에게 광주·전남의 풍성한 먹거리와 잊지 못할 낭만을 선물하겠다는 전략이다. 전국에서 즐겨 찾는 야시장으로 발돋움시킨다는 포부를 안고 우리는 지금 출발점에 섰다. 부산의 강동야시장, 경주의 중앙야시장보다 더 명성 있는 야시장으로 키우리라 다짐한다.

자신 있다. 동구는 이미 대인예술야시장을 성공시킨 노하우가 있다. 또 있다. 남광주시장 상인들의 살아 꿈틀거리는 열정과 의지다. 조만간 호남의 풍성한 먹거리와 문화체험, 상인들의 친절함으로 중무장한 남광주야시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동구는 내년 2월부터 남광주야시장에서 시민여러분에게 추억을 나누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社 說

저인망 식 음주운전 단속 계속돼야 한다

광주경찰청이 메르스 사태 등으로 느슨해진 교통질서 다잡기에 나섰다. 저인망 식 음주운전 단속이라는 강력 한 카드를 꺼내 놓은 것인데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르스 사태로 음주운전 단속이 중단되자 광주 지역의 음주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했다. 순창에서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5일부터 광주 지역 메르스 관리대상자가 0명이 된 지난 18일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04건이었다. 사망자도 3명 나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없이 98건(부상 192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음주운전 단속의 공백을 노린 양체 음주 운전자들이 늘어났다고 봐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은 지난 29일부터 가용 인력을 총동원, 큰 도로는 물론 이면도로까지 총출동해 음주단속에 나서 단속 첫날 음주운전자 34명을 적

발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기간 하루 평균(0.18건)보다 56%나 많은 것이다. 충격요법이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특별히 한 몫을 한 셈이다.

정작 문제는 지금부터다. 일회성 단속으로는 한번 흐트러진 운전자의 의식을 되돌려 놓기 어렵다. 그도 그럴 것이 음주문화에 대한 관대함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팽배해 있고 '술 마시고 운전해도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의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해답은 지속적인 단속에 있다. 광주경찰이 강력한 단속 의지를 천명한 만큼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 단속을 펼쳐야 한다. 차체에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운전자들은 순간의 잠깐된 선택으로 본인의 인생은 물론 타인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 할 것이다.

정부 산단 활성화, 수도권 규제 완화 아닌가

정부가 최근 산업단지(산단)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그동안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없었던 광고대행업·콜센터·유통광고업 등 비제조업종도 입주 가능해진다. 활성화 방안에는 산단 내 토지 용지제한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저수지 인근 공장 설립, 환경오염 영향평가 사일 단축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 조치는 산단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쟁력을 살려 우리 경제 전반에도 도움을 주자는 것이 그 의도다. 실제로 바닥에 떨어진 기업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리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조치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예비 단계 아닌가 하는 점이다.

당장 녹색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산단 입지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방에 공장 신설 등 투자보다는 수도권 중심의 개발이 진행될 것이 뻔하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또 수도권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산단 공장의 입

지규제 완화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문제를 아울러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개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비수도권 경제가 반이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는 점은 불을 양향평가 사일 단축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 조치는 산단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쟁력을 살려 우리 경제 전반에도 도움을 주자는 것이 그 의도다. 실제로 바닥에 떨어진 기업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리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조치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예비 단계 아닌가 하는 점이다.

수도권 과밀화는 우리 사회 발전의 큰 걸림돌이다. 그런데도 지방경쟁력을 희생양으로 삼아 수도권에 투자를 몰아주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봐야 하나. 정부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때 경제 살리기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오늘날이야 사방에 정보가 넘쳐 있지만, 과거엔 정보가 귀했다.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시대에도 권력자들은 정보의 힘을 잘 알고 충분히 활용했다.

정보통신 시스템이 거의 발달하지 않은 고대의 권력자들은 정권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스파이를 활용했다. 35대에 걸친 압바스 왕조의 창시자이자,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건설한 강력한 칼리프(이슬람 교단의 지배자) '알 만수르'는 스파이를 잘 활용한 군주요 이름 높다. 그는 중요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한 19세기 들어 최고의 정보 활용자로는 '금융왕국'을 건설한 영국 로스차일드 가문을 들 수 있다. 당시 로스차일드 가문의 5형제는 런던과 파리, 프랑크푸르트·빈·나폴리에서 각각의 사업을 하면서 각국의 중요 정보들을 끊임없이 주고 받았다. 각종 정보가 로스차일드 가문의 마차와 배에 실려 비밀리에 전달됐으며, 형제들은 경쟁자들이 모르는 정보를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형

제들이 당시 유럽의 운명을 결정했던 워털루 전쟁의 결과를 전 유럽에서 가장 먼

정보와 스파이

한 자리를 맡은 모든 관리에게 전달 밀한 정보를 받은 모든 관리에게 전달 밀한 정보를 한 명씩 붙여 놓았다. 아들·친척이라고 봐주는 법이 없었다.

왕자 무함마드가 반란의 총동으로 있을 때 '한 시인이 왕자를 찬양하는 시를 지어 바쳤고, 왕자가 상으로 큰돈을 주었다'는 소식을 밀정어 전해 오자 칼리프는 사신에게 칼을 들러 왕자에게 보냈다. 차마 왕자를 죽일 수 없었던 사신은 '왕자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사신에게 말해 주었다. 그 소식은 곧바로 칼리프의 귀에 들어갔고, 사신은 왕명 불이행으로 죽었다. 모든 관리들이 벌벌 떨며 왕에게 복종했다.

저 알고 영국 국채를 매입, 천문학적 이익을 올린 것은 증권계의 전설이다.

과거와 달리 IT기술이 발전한 오늘날엔 첨단 장비들이 이 같은 스파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장비가 민간 사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이 좋은 예다.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이 민간을 상대로 해킹프로그램을 가동했을 리는 없겠지만, 우리 주변에 스파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찜찜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홍형기 경제부장 redplan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생 활 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42	여 론 매 체 부 2200-696	광 고 마 케 팅 국 227-9600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 로 젝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